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5월 3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동부 일 좀 해라!

노동부, 노조파괴 공범에 불법 행정지침까지

노동부 이름이 부끄럽다. 노동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조파괴를 목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어서 결국 한광호 열사를 죽게 만들었다. 거기에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물인 단체협약까지 불법 행정지침으로 손대고 있다. 노동부가 노조를 없애거나, 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한광호 열사 후에도 후속조치 없어

한광호 열사의 죽음 이후, 금소노조는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지적하며 신속한 임시건강진단과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수수방관이었다. 유성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가학적인 노무관리가 노동자를 죽였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2달이 넘도록 열사 투쟁이 거세지자 이제야 임시건강진단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시건강진단도 회사와 어용노조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긴급히 진단하라고 했더니 가해자들과 같이 한다는 소리다. 더구나 어용노조는 법원에서 불법단체로 판명되었는데 노동부는 어용노조를 굳이 끼워넣고 있다.

투쟁으로 노동부 일하게 만든다!

노조파괴가 시작됐을 때 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본 편에 서있었다.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26일 청주노동지청 규탄집회가 열릴 때도 노동부는 경찰을 동원해 입구를 막았다.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다. 노동부가 투쟁에 밀려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열사투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서서히 승리로 가고 있다. 노동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의 미디어 활동가들 노조파괴 사업장 찾아

영상, 라디오, 잡지 등 미디어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우리 지부의 노조파괴 사업장을 찾았다. 유성영동지회, 보쉬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 피엘에이지회를 찾아 조합원들의 사연을 듣고 직접 취재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잡지를 만들었다.

26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노조파괴를 겪은 조합원들의 진솔한 이야기, 임금체불로 인한 힘겨운 삶 등이 담겼다.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 속에서도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는 강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가 감동을 더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과 잡지 등은 지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많은 지회가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투쟁 승리 촛불문화제

- 충북
6/1(수) 19:00 / 청주 성안길
- 대전
6/2(목) 18:30 / 대전 타임월드

■ 열사투쟁 양재동 농성장 사수

- 5/31(화) 09:00 ~ 6/1(수) 09:00
- 근로복지공단 농성 병행할 예정